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모든 생산공정이 고도로 현대화되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확립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지난 시기의 모습을 흔적조차 찾아볼 수없이 완전히 때벗이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휴양소에 온 것으로 생각할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실시간 장악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 통합생산체계는 우리나라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공장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쁘히 갖추어놓은것은 물론 우리의 설계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수자조종공작기계와 공업용로봇, 무인소재운반차, 자동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유연생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장을 21세기 산업발전의 추세에 맞게 전면시켰다고 말씀하시었다.

로동자들을 유해로동, 고열로동에서 완전히 해방시킬수 있게 도금 및 열처리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였으며 생산지휘를 보다 원만히 할수 있도록 현

대적인 무선통신망체계도 훌륭히 구축해 놓았다고 하시었다.

공장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결과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제품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이고 그 질을 훨씬 개선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폭넓은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원격교육도 받을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도 훌륭히 건설해놓았으며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들과 합숙, 탁아소, 유치원도 흠잡을데없이 현대적으로 건설하였다고 기뻐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여러가지 기계제품들의 성능과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모든 제품들을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을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8일



일떠서고있는 때에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을 한계단 발전시킬수 있는 도약대, 기계제작공업부문 현대화의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대화함으로써 로동계급들이 궁궐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배우며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창조와 건설은 철두철미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

들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서 타오른 현대화의 불길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도 세차게 타번지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현대화공사에서 땀과 열정, 지혜를 아낌없이 바친 일군들과 종업원들, 과학자, 기술자,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진생산을 보장한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함으로써 현대적인 기계생산과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671대련합부대 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671대련합부대 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감시소에서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훈련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천지를 진감하는 요란한 폭음과 타래쳐오르는 불기둥, 질은 연기속에서 치렬하게 진행되는 쌍방실동훈련을 보시고 방어와 공격이 나무랄데가 없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해에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 671대련합부대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보

면서 제시한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해 울해에 인민군대에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강도높은 훈련을 진행하였다는 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앞으로 이런 훈련을 많이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671대련합부대가 오늘훈련을 통하여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공격으로 이전할수 있는 완벽한 방어와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추었다는것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

대의 전투훈련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휘관들과 훈련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공격과 방어에서 제기될수 있는 각이한 정황들을 깊이 연구하여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주도성,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데 대한 문제,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사이의 긴밀한 협동을 완성하고 전투행동의 불의성과 신속성, 일치성과 정확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계절과 기후, 주야에 관계없이 작전수행능력을 높일데

대한 문제, 군인들을 실질 싸움마당에서 써먹을수 있는 전투행동조법에 숙련시킬데 대한 문제, 전진보장구분대들의 장비현대화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등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대에서 당의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투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격 동 과 사 변 들 로 흘 러 온



주제 104(2015)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바야흐로 밝아오고있다.

흘러온 이 한해를 돌이켜보는 모두의 가슴이 격동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다.

범상한 한해가 아니었다. 사변과 사변으로 이어져온 격동과 환희의 2015년이었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기

세차게 달려오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몰라보게 변모되며 기적과 변혁의 365일이 흘러왔다.

조선은 김정은시대의 2015년에 장쾌한 전변의 또 한페이지를 자랑스럽게 수놓았다.

《통일신보》 편집국은 2015년을 격동시킨 공화국의 경이적인 화폭들을 묶어 이 글을 낸다.

세 계 가 본 조 선 의 힘

10월에 세계는 조선의 진짜 힘을 보았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장엄한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이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그것은 령도자와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최후승리로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조선의 약동하는 힘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는 철의 흐름, 감동의 서사시였다. 광장주석단을 우러러 군대와 인민들, 청년들

이 한목소리로 웨치던 《김정은원수님 만세!》의 우리와 같은 함성, 지어낼수도, 꾸며낼수도 없는 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의 눈물은 참다운 인간존엄의 세상, 행성의 진짜 강국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해주고있었다.

그 뜻깊은 경축광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에서 수십 번이나 《인민》에 대해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가자고 전체 당원들에게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사랑, 이것이 일심단결의 원동력이고 원자란도 깨뜨릴수 없는 조선의 힘의 원천임을 10월의 경축광장은 온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였다.

10월의 환희와 격동이 가

라앉기도 전에 세계는 평양에서 울려 퍼지는 소식에 또 한번 놀랐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소집과 관련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가 채택 발표된것이다. 그것은 원자란을 터뜨린것보다 더 위력한 선군조선의 힘찬 선언이었다.

조선은 적대세력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을 박산내고 최후승리를 향한 희망의 높은 언덕에 올라섰음을 알리는 장엄한 시위였고 김정은시대의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을 알리는 사변적인 서곡이었다.



4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종의 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새해 신년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고 호소하신 그이께서 백두의 슬기와 기상을 인민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위하여 백두산에 오르신것이였다.

초당 25m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치는 백두산칼바람을 한몸에 맞으시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

가 자 백 두 산 으 로 !

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양식을 안겨주는 길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힘찬 발걸음따라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몸과 마음에 새기려고 민족의 성산 백두산정을 찾는 군대와 인민, 해외동포들의 행렬은 온 한해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

는 시대의 진군가로 더 높이 울려 퍼졌다.

온 나라에 백두의 정신이 나래치니 가는 곳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전변의 기적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던 전투비행사들이 하늘초소의 강자들로 자라났고 선군조선의 장한 딸, 빨찌산녀전사들이 련전전승의 체육신화를 안아왔다. 백두산아래 발전소건설장에서는 영웅청년신화가 창

조되었으며 인민생활향상과 문명국건설, 최첨단돌파전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승리와 기적을 불러왔다.

세계는 참된 민족정신의 힘을 보았다. 그 거대한 폭발이 얼마나 강렬한 빛과 열을 발산하며 세계를 향해 솟구쳐오르는지 실감하였다.

실로 2015년은 백두산정신으로 눈부신 기적들과 위훈을 부른 행운의 한해였다.



병 진 로 선 의 승 리

5월, 바다면을 뚫고 불쑥 솟구쳐오른 탄도탄이 거세찬 불줄기를 뿜으며 창공높이 날아올랐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롭게 개발 완성한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장면이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함내소음준위, 발사반충력, 탄도탄의 수면출수속도, 자세각 등 최신군사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히 도달하였다는것이 검증확인되었다.

이 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김정은조선은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소멸할수 있는 세계적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마음먹은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의 뒤잔등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이 매달리게 되었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북이 핵탄두탑재용잠수함발사 탄도미싸일을 보유하게 되면 핵보복능력을 확보하는것으로 되기때문에 강력한 핵억제력을 발휘할수 있게 된다.》고 크게 떠들었다.

10월 초,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완공소식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였다.

백두산하늘아래에 우뚝 솟아난 웅장한 1호발전소언제는 올려다보면 하늘끝에 닿은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것만 같고 멀리서 보면 혁명의 수뇌부를 웅위하여 성세, 방패를 이룬 청년대군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아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해주었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을 소유한데 이어 신행반함선로켓발사훈련이 진행되어 조선인민군 해군의 해상작전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가 진행되기를 비롯하여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이 세차게 타면져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는 더욱 완비되고 자위의 핵억제력은 질량적으로 보다 강화되게 되었다.

한해가 저물어 가던 12월의 어느날 새로 개건

된 평천혁명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올리신 력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수 있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약육강식의 룬리만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속에서 막강한 군력을 과시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선군조선의 경이적인 모습을 보면서 온 겨레는 조선민족의 자부심을 금치 못하였다.

백 두 산 영 용 청 년 발 전 소 가 준 공, 청 년 강 국 의 시 위

우리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심의 루적이며 1호발전소언제의 높이는 영웅청년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 청년강국의 존엄의 높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발전소건설을 통해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하고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 불태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된것은 몇십, 몇백만 kw의 전기를 얻는것에 비할수없는 커다란 승리라고,

이런 청년대군을 가지고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이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백두산이 지척인 바로 그곳에서 선군시대의 청년들격정신과 선군청년문화가 창조되어 온 나라에 나래쳤다.

올해 조국땅 어디서나 거창하게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조선로동당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웃으며 뛰어들어

빛나는 실천으로 받드는 영웅적인 조선청년들의 기개가 높뛰고있다.

세계적으로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있을 때 조선에서 하늘을 떠받치는 발전소의 언체처럼 청년강국의 존엄이 치솟고 민족자주위업을 떠메고나갈 맹장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된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청년중시정치가 낳은 자랑찬 결실인것이다.

(3면으로 계속)



선군조선의 승리의 한해 — 2015년

(2면에서 계속)

《세상에 부림없어라》

2015년의 첫 아침, 력사적인 신년사를 마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다른 그 어데도 아닌 평양육아원, 애육원이었다.

지난해에 이곳 육아원, 애육원을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번듯하게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켜 이곳을 찾아주신 것이다.

아이들은 저저마다 안겨 들고 그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온 나라에 끝없이 울려 갔다.

자고로 부모없는 아이들의 삶은 슬픔과 고독, 불행으로 가득찬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인민사랑의 정치, 후대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는 원아들이 제일 행복한 아이들로 되고 있다.

동해의 항구도시 원산에서도 멋진 육아원, 애육원이 일떠서 아이들이 행복의 준공례프를 끊었다. 지금 각 도와 시들에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같은 아이들의 행복의 궁전이 마감단계에서 건설되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있어 어디가나 들리는것이 아이들의 웃음, 인민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이다.

그날 친부모보다 더욱 살뜰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품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높아갈 때

예로부터 불난 곳에는 남는것이 있어도 큰물뒤에는 건질것이 없다고 했다. 큰물이 인간세상에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가져다주는가를 교훈적으로 새겨주는 말이다.

라선 땅을 진감시킨 로동당 만세소리

지난 8월말 며칠간 계속 내린 폭우로 일어난 라선시의 큰물피해는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많은 공장, 기업소, 농경지와 철도, 도로가 파괴된것은 말할것도 없고 수천세대의 살림집이 물에 잠기고 무너져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풍경을 방불케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사이 집과 가산을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되였다.

그러던 라선시가 불과 한 달남짓한 기간에 피해복구를 말끔히 가시고 라선시 선봉지구의 여러 지역에 근 2 000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새로 일떠서 기쁨속에, 웃음속에 새집들이경사가 나게 되였다. 한지에 나앉았던 피해지역주민들은 원래 살던 집과는 대비조차 안되게 크고 번듯하게 지어진 새 집들에 입사하여 저마다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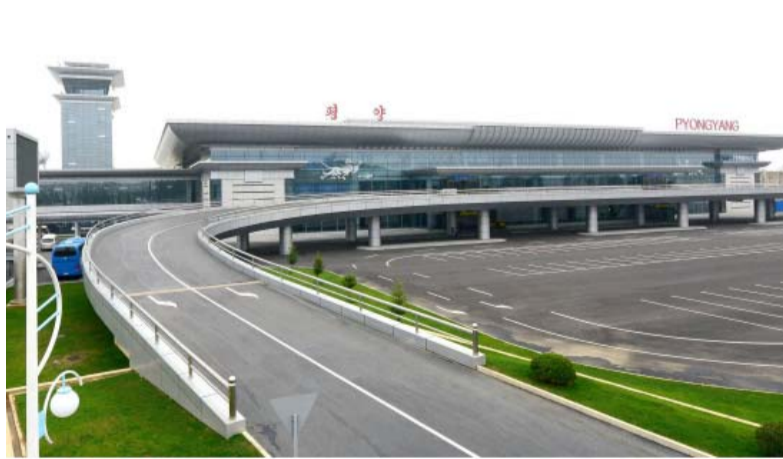
이 준것이 아니었다. 송고한 인민사랑이 꽃피운 라선의 전화위복이였다.

라선지역의 큰물피해와 관련하여 깊이 심려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 큰물피해복구대책문제를 중요 의제로 토의하도록 하시고 인민군대가 라선시큰물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만 한 로동당시대의 멋쟁이 건축물로 개진되어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수 없게 완전히 변모되어 한번 들어가본 사람은 누구나 동화세계에 들어갔다 나온 심정이라고 걱정과 환희를 터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의 웃음을 최후승리의 함성으로 이어가게 하시려고 훌륭히 꾸려주신 기념비적건축물이다.

정령 이 한해도 조선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으로 시작되고 아이들의 행복넘친 목소리로 저물어가고있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이해에도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강국, 문명국건설에서 눈부신 전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났다.

로 천지개벽되였다. 대대로 꿈과 리상을 실어보던 대동강물결위에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무지개마냥 두둥실 떠서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고있다.

환상의 세계를 재현한듯 속속의 과학기술전당이 국보적인 건축물로 일떠섰고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과학중시, 인민사랑의 정치가 그대로 응축된 미래과학자거리가 천연색거리의 용자를 한껏 드러내며 솟아올랐다. 평양메기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들이 국산화된 현대화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일떠서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

예술 또한 시대를 들썩하게 하고있다. 국보적인 멋쟁이악단들인 모란봉악단, 청봉악단이 황홀하고 매력적인 선율로 흥하는 이 세월의 음향을 더해줄 때 대동강의 대형수상무대는 음악감상, 예술향유의 독특한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황금의 9개 꼴을 터뜨리며 맞다든 지역의 강팀들을 눌러버리고 련전련승한 녀자축구선수들이 안아온 체육신화와 금메달 폭풍이 온 한해

조국땅을 진감하였다.

문명의 새옷을 떨쳐입은 조선의 첫 안내자인듯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황홀경으로 자기 모습을 일신할 때 하늘에서는 자기의 힘과 기술로 만든 경비행기가 날았다. 그에 뒤질세라 조선의 땅속에서는 자기의 힘과 기술로 만든 지하철동차가 기운차게 달리게 되였다.

미국이 제재와 압살의 마수를 뻗치며 공화국의 생존공간을 파괴하고 문명을 말살하려 달려들고있지만 조선은 자기의 힘으로 당당히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건설하고있다.

공화국을 방문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들은 약동하는

세계를 향해 비약해나아가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경탄을 터뜨리면서 서방이 조선으로부터 문화적으로 문명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인 마르세이유 가르피는 《아마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일것이다.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입고 다닌다. 서방통신들의 선전으로 굳어진 우리의 생각처럼 남성들과 녀성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은것이 아니었다. 서방에서 떠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다.》라고 말하였다.

지난 1년은 과학의 힘으로 창조와 건설, 문명국건설에서 수많은 사변들을 기록한 벅찬 한해였다.

올해는 어딜 가나 물고기 사재였다.

지난해에는 조국의 바다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더니 올해에는 여기저기서 물고기산이 솟아오르는 희한한 풍경,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호젓한 풍경들이 도처에서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받아안고 인민군대가 물고기잡이전투에서도 맨앞장에 서고 온 나라 수산사업소어로공들이 일떠서 도처에서 신이 나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였다.

바다에는 풍어기가 련속 휘날리고 포구마디에는 물고기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보

선군시대의 새 선경-《이채어경》

는것마다 물고기산이였다. 그속에서 하루에 1년의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기적도 창조되였다.

인민들의 식탁우에 사회주의바다향기 넘쳐날 때 온 나라의 양어장들에서도 양어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 다녀가신 평양메기공장에서 지난해의 두배에 달하는 1 800여t의 메기가 생산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될 때 5월9일메기공장에서 팔륙만 한 메기들이 양어못들에 옥실거려 물 절반, 고기

절반이라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대동강을 비롯한 온 나라 곳곳의 강과 저수지들에 현대적인 이동식그물우리 양어장들이 설치되어 먹이를 적게 들이면서도 물고기를 많이 생산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현대적인 어구종합공장과 어분사료공장이 건설된것도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빠른 기간에 높일수 있는 전망을 보여주는 호젓한 풍경이 아닐수 없다.

* * 2015년을 돌아보는 온 나

라 인민의 마음은 기적과 변혁, 행운의 한해를 바래우며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다.

바야흐로 도래할 통일강성 국가의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며 더 큰 사변의 2016년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다.

희세의 정치가, 위대한 민족의 령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변과 기적의 력사는 최후승리의 그날을 부르며 힘차게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통일애국의 삶은 빛납니다

다가오는 12월 31일은 저의 아버지(곽철성)와 온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잊을수 없는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저희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한장의 사진을 꺼내보곤 한다. 뒤면에 활달하신 필체로 《김일성》이라고 쓰신 그의 친필이 새겨져있는 사진은 해방후 수령님께서 저의 아버지에게 기념으로 주신 사진이다.

사진에 모셔진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를 때마다 저희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한평범한 통일애국투사에게 베풀어주시는 한없이 숭고한 사랑과 의리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곤 한다.

* *
원래 저의 아버지는 해방전에 조국광복회 산하조직인 《화천광산반일동회》와 전민항쟁무장조직인 《백암산주장대》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웠다.

망국의 암담한 세월 백두산을 넘나드시며 삼도왜적을 쥐락펴락하시는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소식에서 큰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그때부터 한생을 장군님의 전사로 살며 싸우리라 결심하고 반일항전에 한몸 바쳐나섰다.

하기에 해방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에 의해 민족분열의 위험이 커가게 되자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통일사상을 받들고 남녘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용약 뛰어들었다.

그때가 1948년 이른봄이었다. 시련에 찻던 그 나날 아버지는 생명을 노리는 위험이 순간마다 뒤따르는 속에서도 북녘하늘을 우러르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을 금치 못하고 하였다. 하여 아버지는 사신을 헤치고 여러 차례 평양에 들어와 곁곁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를 만나뵈곤 하였다.

그때마다 백두산위인들께서는 남녘의 전구에서 벌려온 저의 아버지의 투쟁에 대해 높이 평가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저택의 수수한 방에서 검소한 식사도 함께 나누곤 하시었다.

1948년의 한해가 다 저물어 가던 12월 31일, 아버지는 또 다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는 꿈같은 영광을 받아안게 되었다.

이날 저의 아버지가 울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래일은 해방된 조국땅에서 네번째로 맞은 양력설이라고, 우리 인민들이 벌써 명절분위기로 흥성이 고있다고 하시면서 해방전에는 명절이 와도 인민들의 한숨소리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가, 조국이 해방된지 3년 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나라는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교시 하시었다.

우리 인민이 일치단결하여 올해에 정규무력건설도 선포하고 공화국정권도 창건하였으니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위용떨치게 되었다고 하시는 수령님의 안광은 저 멀리 푸른 하늘가로 달리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그 하늘아래 장엄하게 펼쳐졌을 백두의 험준준령과 항일의 전구들을 그려보시었다.

조국해방의 멀고 험한 로정을 더듬으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며 아버지는 형언할수 없는 격정으로 가슴설레이었다.

그런 저의 아버지를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지 않는가고 물으시었다.

지금 사람들은 웅근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미래과학자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완공하였다는 사실앞에서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각이한 모양의 초고층살림집들과 묽음식살림집들,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각종 상업, 금융, 편의봉사시설들, 휴식터와 공원들이 구비된 웅근 하나의 거리를 그렇게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다는것은 기존의 건설공법이나 판례로서는 생각할수도, 리해할수도 없는 일이다.

거기에 대동강제방공사와 도로정리를 비롯하여 주변환경정리도 따라세워야 했다. 실로 미래과학자거리는 최신건축기술의 도입을 비롯한 많은 지적, 인적, 물적자원을 필요로 한 방대한 건설과제였다.

무슨 힘이 이처럼 방대한 건설공사를 최단기간내에 그것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수 있게 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부강번영에 자기의 모든 지혜를 바쳐가고있는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해 미래과학자거리를 건설하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건설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강력한 건설력량을 특별히 조직하시어 현지에 파견해주시었으며 공사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육중시, 인재중시, 숭고한 인민사랑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신심이 생기고 힘든줄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처음 해보는 일인데 왜 힘들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지금 북반부사업은 잘되고 있지만 남반부사업이 잘 안되고있다고, 미제가 조국의 절반땅인 남녘땅에 틀고앉아 우리나라의 통일독립국가건설을 각방면으로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고 교시하시었다.

당시 남조선의 실태는 험악하였다.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온갖 전횡을 일삼으며 우리 강토를 영영 돌로 갈라놓으려고 피눈이 되어 날뻐고있었다. 무서운 탄압이 통일애국투사들의 뒤를 따랐다. 애국적민주력량은 위축되어있었다.

국토완정이 그토록 귀중하고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한시도 수수방관할수 없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건국의 환희로 강산이 들끓는 한해의 마지막날까지도 그토록 마음쓰고계시었던것이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근엄한 표정으로 반미구국투쟁을 새로운 양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도를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아버지가 새로운 역할을 담당수행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순간 아버지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너무도 커다란 신임을 받아안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저의 아버지를 보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곱동무, 해봅시다, 곱동무는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곱동무를 혁명동지로 굳게 믿는다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배심있게 하면 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생사를 같이할 또 한명의 동지를 얻게 된것이 기

쁘시어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늘과 같이 기쁜 날에 곱동무와 사진을 찍으려 한다고 그리고 곱동무에게 앞으로 영원한 혁명동지가 되자는 의미에서 자신의 사진을 주겠다고 하시며 뒤면에 활달한 필체로 《김일성》이라고 쓰시고 친히 저의 아버지에게 주시었다.

진정 80여성상에 이르는 우리 수령님의 고귀한 한평생에 동지들과 사진을 찍으신 이야기도 많고 전우들에게 가슴뜨거운 친필을 남기신 감동깊은 사연 또한 그 얼마였던가.

하지만 자신의 존함을 친필로 남기신 사진을 영원한 우정의 기념으로 사랑하는 전사에게 안겨주시는 그렇듯 뜻깊은 사진은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믿음을 주시면 자신의 심장을 통째로 주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일애국의 길에서 한목숨 강그리 바칠 불같은 맹세를 다지는 저의 아버지를 몸가까이에 세우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민족의 분열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는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반미구국항전으로 힘있게 불리일으켰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국의 뜻깊은 마지막날 저의 아버지에게 동지적사랑과 믿음이며 어린 사진을 주시던 일을 감회깊이 회상하기도 하시고 신심드높이 싸울수 있도록 고무해주시었다.

1950년 6월 25일, 조국의 남쪽땅에 틀고앉아 전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팽분하던 미제는 우리 겨레와 진보적인 류의 평화통일지향을 외면하고 리승만괴뢰도당을 사촉하여 공

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전쟁도발로 말미암아 조국앞에는 커다란 위협이 닥쳐왔다.

또다시 제국주의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독립국가의 자유로운 인민으로 남아있느냐 하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갔다.

아버지는 미제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한 인민군부대들의 맨 앞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작전에 빛나는 공헌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는 임무수행도중 적들의 불의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아버지는 적의 총탄에 심한 중상을 당하였다. 흐려지는 의식속에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아버지는 가까스로 저고리의 앞섶에서 사진 한장을 꺼내었다. 투쟁의 나날 가슴에 소중히 품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곤 하던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영상이었다.

금시 붓을 달리신듯 활달한 필체의 존함이 뚜렷하고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것이라고 하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

이 들려오는듯싶은 사진을 손에 꼭 쥔 아버지는 함께 싸우던 전우에게 《이 사진은... 수령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인데 잘 보시었다가 전쟁이 승리하면... 이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 나의 마지막보고를 전해주소...》라는 부탁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저의 아버지의 최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못내 비통해하시며 조국은 곱철성과 같은 유명무

명의 애국렬사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뜨겁게 교시 하시었다.

백두산위인들께서 것처럼 아끼시던 전사, 통일조국의 미래를 그리며 불사신처럼 용감하게 싸우던 아버지가 남녘의 이름모를 산야에 쓰러진 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사랑과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통일애국의 길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쓰러진 저의 아버지

에 대하여 한시도 잊지 않고계시었다.

2004년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곱철성동무는 비록 전사하였지만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공적을 남기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저의 아버지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대대같은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그러시고도 주신 사랑적으신듯 아버지를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반일애국렬사로 내세워주시고 애국렬사릉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었다.

하기에 회생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공화국영웅메달과 영웅증서를 수여받던 날 저희들은 격정의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장군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울리고 또 울리었다.

평범한 통일애국투사에게 돌려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없이 숭고한 믿음과 의리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더욱 활짝 꽃피어나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저와 우리 가족은 통일애국의 길에서 값높은 한생을 바친 아버지처럼 대를 이어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모든것을 다해나갈것이다.

곽승일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며 (4)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비약의 속도

시며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은 1970년대, 1980년대의 건설전투장을 방불케 한다고, 이곳에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속도로 나가면 가까운 앞날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훌륭히 일신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신 원수님이시다.

최상의 문명, 최고의 속도를 창조하겠다는 립장을 가지고 미래과학자거리를 후세에 길이 남을 거리로 완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건설력량을 더 증강하도록 해주시고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획기적인 조치도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건설전투를 힘차게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을 보시면서 저렇듯 강하고 충직한 전사들이 있기에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최고사령관의 뜨거운 전투적인 사를 보낸다고 하시었다.

령도자의 믿음을 인생의 영광으로 받아안았기에 군인건설자들은 산악같이 일떠나 하루에 2개층의 골조를 형성하는가

하면 20여일만에 5 000여㎡의 벽체미장과 타일붙이기를 끝내는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들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려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할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시고 명령을 주시던 무조건 결사관철하고야말겠다는 견결한 투쟁정신이 체질화되었

기때문이다.

하기에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던 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건축물들은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며 앞날에 대한 락관을 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소중한것을 자기 식으로 창조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땀을 삼장으로 일떠세운 선군조선의 창조물, 요소요소마다에 애국



심이 뜨겁게 어려있는 고귀한 결정체라고 하시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결사관철해야 한다는것은 인민군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자리잡고있는 숭고한 정신이다.

바로 이 정신이 있어 아이들의 궁전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6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개건되었으며 날마다와 싸우며 건설해야 하는 1월 8일수산사업소는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완공될수 있었다. 현대적으로 개건된 5월1일경기장은 10개월동안에, 천수백세대의 살림집들과 락아소, 유치원, 학교들, 병원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의 위성원과 체육공원, 상업망까지 갖춘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는 단 7개월동안에,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들어앉은 평양음악원, 애육원과 연공과학자휴양소는 4개월 남짓한 기간에, 마식령스키장은 8개월도 못되는 사이에 결속될수 있는것이다.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과 문명을 위한 위대한 령도자의 구상과 의지, 확고한 결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조신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시간과 분초를 다루며 변모되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정치와 전민의 애국충정에 의해 공화국은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며 사회주의강성국가, 문명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 (14)

축구로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려고

《하나되자! 하나되어 세계를 흔들어놓자》, 《남이 이겨도 북이 이겨도 우리는 하나!》

2002년 9월 서울에서 북남통일축구가 진행될 때 경기장 곳곳에는 이런 구호들이 나붙어 경기장을 민족화해와 통일열기로 후텁게 했다.

북과 남의 선수들은 이 경기를 통해 승부를 떠나서 통일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며 경기장을 흥취무진하였고 경기후에는 서로 경기복을 바꿔 입고 축구화를 바꿔신으며 혈육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였다. 또한 경기후 북과 남의 선수들과 응원자들은 통일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민족의 최대속원인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절절한 목소리에 담아 갈구하였다.

이처럼 북남사이의 통일축구가 마련되고 축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의지가 온 세상에 파시될수 있는것은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통일의지와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1990년 가을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후 공화국의 체육관계부문 일꾼들은 남측으로부터 북과 남사이의 축구경기를 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미 공화국은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조국통일의 열망으로부러 출발하여 북과 남이 하나의 팀으로 경기대회에 참가하자고 거듭 제의도 하였고 유일팀 구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에서 대범하고 통이 큰 양

보도 하였었다. 그러나 남측은 당시 많은 구실을 대면서 공화국의 제의를 거부하고 끝내 별개의 팀으로 참가하고 말았다.

그러던 남측이 돌연히 태도를 바꾸어 북남축구경기를 하자고 들고나오자 일꾼들은 이 사실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보고드리었다.

당시는 미국과 남조선 보수당국의 도발책동으로 하여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이 심화되고있던 때였다.

또한 국제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대에 유일팀으로 참가할데 대한 문제를 공화국이 제기할 때마다 그러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던 남측이 갑자기 축구경기를 하자고 하는것이 뜻밖인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북과 남 사이에 접촉과 교류를 마다한다면 그것은 민족분열의 고통을 강요하는 외세의 책동에만 유리하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을 외면하는것으로 될것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체육교류를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통일분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되게 할것을 결심하시고 북남축구경기가 진행될수 있게 대범하고 아량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

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북과 남의 체육관계자들이 모여앉아 축구경기를 위한 실무문제들을 토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축구경기의 명칭을 어떻게 부를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심화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측이 제안한 《경평축구경기》라는 이름을 되살려쓰는것은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것은 물론이거니와 통일지향적인 측면도 없고 북남대결을 조장하는 기운만 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축구경기의 명칭을 북남 《통일축구경기》로 하여야 한다고 현명하게 가르쳐주시었다.

북남사이의 축구경기를 《통일축구경기》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의 인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수많은 남녘동포들도 《통일축구》라는 말은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 마음에 꼭 드는가. 축구경기도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통일의 뜻으로 한다는데는 정말 심장이 동하고 눈물이 쏟아진다.》고 하면서 눈굽을 적시었다.

그후 며칠이 지나 1990년 10월 평양과 서울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통일축구경기가 성대히 진행되게 되었으며 북남축구경기를 통하여 민족의 통일열기는 더욱 고조되

게 되었다. 온 겨레의 관심속에 진행된 북남축구경기는 우리 겨레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기를 온 세상에 파시한 분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통일축구행사였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2002년 9월에도 북남통일축구경기가 서울에서 또다시 진행되었으며 이 경기를 통해 북과 남은 민족의 피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를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지나온 한평생이 북남관계는 무엇일까

저물어가는 이해는 조국해방 70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해였다. 하기에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대한 민족의 기대와 열망은 컸다.

이러한 기대와 열망은 지난 8월 교전직전까지 치달았던 엄혹한 정세가 북남고위급급접촉합의로 완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으로 돌아서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하지만 얼마전에 진행된 북남당국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북남관계의 앞길에는 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겨레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게 되었다.

무엇때문인가. 북남관계문제를 대하는 남측의 그릇된 자세와 행동때문이다.

흔러온 2015년 북남관계를 뒤 돌아보면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대하는 서로 다른 두 입장을 확인할수 있다.

공화국은 올해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해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온 겨레가 지켜보는 신년사에서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획기적인 구상을 밝히고 북남관계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중대립장들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8월에 조선반도정세가 무장충돌과 전쟁적경계로 치닫게 되었을 때에는 주도적으로 북남고위급급접촉을 마련하고 최대한의 인내성과 아량을 발휘하여 귀중한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민족을 전쟁의 재난적인 위기에서 구원하였으며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앞길을 열어놓았다. 올해에 금강산에서 이루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노동자축구대회가 뜻깊게 진행된것도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하지만 공화국의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의 무성의하고 불순한 책동에 의해 북남관계에서는 이렇다할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은 평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온 한해동안 외세와 함께 대규모복합전쟁연습의 포성을 울리었다. 상반기에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북의 평화호소에 대담했고 여름철에는 또 《울진 프리덤 가디언》 합동전쟁연습의 불구름으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덮어버리었다.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면서 서울 한복판에 《북인권사무소》라는 대결모략기구를 세우고 년중 인이 아프도록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든것도 남측이고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위협천만한 비라 살포망동을 또다시 벌리어 공화국 군민의 격분을 자아내게 한 것도 남측당국이다.

북남사이의 모처럼 마련되었던 당국회담을 결렬어로 몰아간 것도 다름아닌 남측이다.

북남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오던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문제는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기도 하다. 그러나 알려진것처럼 남측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긴절한 문제인 금강산관광재개를 외면하고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회담을 결렬어로 몰아갔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쉽게 합의될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남측은 회담에서 금강산관광재개와 휴어진 가족, 친척상봉사업은 별개의 문제라고 우기였지만 사실 남조선의 각계층이 금강산관광재개를 요구하고있

고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사업도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조건에서 두 사안이 련결되는것은 누가 보아도 리치에 맞는다. 그리고 북남이 관심하는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서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리유》를 대며 부당한 태도를 고집해나선것은 남측에 금강산관광재개의지, 북남관계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북남관계개선의지가 없는것, 이것이 2015년을 돌아다보며 겨레가 남조선당국에 내리는 진단이다.

북남관계는 한갓 《정권》의 인기나 끌어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과 통일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대화의 흥내나 내면서 북남관계에서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그것이 외세의 반공화국적대시압살정책에 추종하여 공화국을 고립시키고 체제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체제통일》의 개꿈을 이루려는것이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집권자가 짬만 있으면 《〈한〉 반도통일은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것》이라고 말한것이나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욱이 《통일준비위원회》가 북남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준비하고있다 하면서 《체제흡수방식의 통일이 성분이 다양한 북의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있다.》고 발언한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이런 체제대결흥심을 버리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고 악화일로서서 개어날수 없다는것이 바로 지나온 한해가 현실로 보여준 교훈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6.15공동선언 제2항을 수용할수 없다는것은 자가당착》

최근 남조선의 인터넷 《통일뉴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월 17일 《낮은 단계의 련방제를 받아들일수는 당연히 없는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판문도론편에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6.15공동선언 2항에 명시된 《련합제》와 《낮은 단계 련방제》 통일방안이 일선학교 《통일교육》에 혼선에 초래하고있다 는 지적에 대해 《낮은 단계는 높은 단계는 련방제는 련방제고 건 북측의 통일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한것이다.

한마디로 련방제란 단어가 들어가는 통일방안은 북측의것이기엔 수용할수 없다는것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난 2000년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합의한 통일방안을 지금 통일부 장관이 수용할수 없다는것은 《격》에도 맞지 않고 다소 《도발적》이기까지 하다. 아울러 합의의 한 주제인 북측의 련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주의적견해이기도 하다.

둘째, 모두 5개 항으로 된 6.15공동선언중에서 제2항은 통일방안에 관한것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조

항이다. 제2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것은 6.15공동선언전체를 부정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셋째, 남과 북은 각각 자기의 통일방안이 있다. 자기의 통일방안만을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통일방안을 부정하면 평화통일은 영영 불가능할것이다. 서로가 다른 통일방안을 놓고 가능한 방법을 합의해나가는게 지혜롭고 옳바른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6.15공동선언의 제2항은 《낮은 차원이거나》 남북의 정상회담이 만나 최초로 합의한 매우 의미있는 통일방안이다. 앞으로 여기서 출발해 《더 높은 차원의》 통일방안합의로 나아가면 되는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홍장관의 발언에 대해 《6.15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해 모든 남북합의사항을 존중한다라는것은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제2항 불수용=6.15선언 부정》이라는 등식을 불식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정대변인은 《그렇지만 6.15선언의 제2항은 남북이 통일방안에 합의한것이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면서 《그래서 북의 련방제통일방안을 우리가

찾고 부르며 공을 몰아가는 북과 남의 선수들의 모습들과 《조국통일》, 《민족대단결》, 《우리민족끼리》라고 목청껏 웨치며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평양시민들의 모습은 정녕 조선은 하나이며 우리 민족은 둘이 되면 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라는것을 톡톡히 보여주었다.

경기가 끝난 후 북과 남의 선수들이 한데 어울려 통일기들을 휘날리며 경기장을 내달리는 속에 혈육애, 통일념원이 어린 《다시 만남시다》의 감동적인 노래선율이 경기장에 울려 퍼져 북남의 선수들과 수만명 응원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본사기자 현은경

탄저균 불법반입사건이 시사해주는 것은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이 탄저균과 페스트균 실험을 서울 한복판 통산미군기지에서 그것도 최소 십여차례나 진행했다는 사실이 남조선미국합동실무단 조사를 통해 확

인되어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생화학무기위협 의 장본인은

이번 합동실무단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십여차례나 탄저균을 반입하여 실험과 훈련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 것은 진상조사 결과에 별도로 붙여 발표한 이른바 《공동성명》이다.

거기에는 《북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총 13종의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비해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한> 미생물방어연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내용이 들어있다.

《북의 생화학무기위협》때문에 남조선에서 《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리우는 탄저균을 들여다 실험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들의 치명적인 세균범죄행위를 가리키기 위한 구차한 변명이고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올해 4월에 남조선강점 미군은 오산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들여와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그 때에도 미국은 죽자마살듯 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뻔뻔스럽게도 그 누구의 《생화학무기위협》을 허울좋은 간판으로 들고나왔었다.

언제봐야 남을 걸고들기 좋아하는 미국이 공화국의 《생화학무기위협》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자료도 없이 운운하는 것만 봐도 감긴 태엽이 풀리듯 때없이 웨쳐대는 그 누구의 《위협》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빈소리에 지나지 않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생명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주범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지나온 역사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국제법도 무참히 짓밟고 세

균무기를 대량적으로 사용하여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야만적으로 학살한 미군이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련속적인 생화학무기실험으로 인민들의 생명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해왔다.

1960년대말 남조선강점 미군의 《식물통제계획 1968》이라는 비밀작전계획에 의한 고엽제살포, 1974년말 독해물인 《RH-787》에 대한 귀족같은 인체실험, 1976년에 미국이 남조선에 퍼뜨린 류행성 출혈열병원체 등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벌린 비인간적인 생체실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 민족 멸살을 노린 생물 무기 실험

1894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어 알려진 탄저균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서 병원성이 매우 강한 세균이다.

이러한 탄저균이 여러 가지 조작을 하여 맹독으로 되면 무서운 살상력을 가진 생물무기로 되게 된다.

자료에 의하면 탄저균은 치사율이 호흡기 감염일 경우 거의 100%에

나지 않는다.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십여차례의 탄저균실험 사실은 지금까지도 미군이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화학무기실험을 중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항시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이 그 누구의 《위협》이요 뭐요하며 다 궤변을 두드려대고 있지만 거기에 귀 기울일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남조선인민들도 《탄저균배달사고 저지른 미군, 갑자기 《위협》을 언급한다.》며 싸늘한 랭소를 보내고 있다.

달하며 그 어떤 항생제에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핵무기보다 살상력이 높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막한가운데 깊은 굴속에서만 실험을 진행한다고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살인무기실험을 대륙을 건너 남의 땅에 와서까지 그것도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 한

두차례도 아니고 십여차례나 진행한 미군의 행위이다.

이것은 무서운 세균무기로 민족을 멸살시키고 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의 산물이다.

뿐만아니라 여기에는 남조선인민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아 개발한 생화학무기를 전세계를 정복하는데 도용하려는 미국의 야만적인 의도도 짙게 깔려있다.

100kg정도이면 300만 명의 인구를 죽일 수 있는 탄저균을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인 서울 통산기지에서 실험한 사실과 탄저균뿐아니라 《흑사병》으로 알려진 페스트균까지도 실험하였다는 사실은 미군의 야만성을 한 더욱 잘 알 수 있게 한다.

미국은 무서운 생화학무기들이 그 누구의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떠벌이고 있지만 명백히 공화국을 겨냥한 공격적인 침략무기이며 그로 인한 피해자는 다름아닌 남조선인민이다.

제 땅에서 아니라 남조선의 서울 한복판에서 위

대미굴종의 결과는 참혹한 죽음뿐

《미군이 군사기밀이라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는 것이 남조선 정부이다.》

이번 탄저균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인터넷신문인 《자주시보》에 실린 글의 한 토막이다.

보는바와 같이 이번 탄저균사건은 남조선당국의 대미굴종의 결과로 초래된 비극적인 사태이다.

위험천만한 탄저균실험을 서울 한복판 미군기지에서 최소 십여차례나 진행했는데도 이미 관련자료와 설비들을 미군이 철수시키는 바람에 남조선당국은 무슨 실험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정확한 실험체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한다.

강점군이 자기 땅에서 주민들의 생명을 엄청난 위협하는 생물무기실험을 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게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조선의 비참한 실상이다.

이번 탄저균사건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사람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시사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결코 《우호국》이 아니며 가져다주는 것은 불행과 고통, 죽음뿐이다.

말로는 《공조》요, 《동맹》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간생명을 위협하는 생화학무기까지 서슴없이 끌어들이고 남조선인민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험천만한 생물무기실험을 한 미국이야말로 법도, 도덕도, 인륜도 안중에 없으며 조선민족을 멸살시키려 달려드는 악귀같은 집단이 아닐 수 없다.

대미굴종의 결과는 참혹한 죽음뿐

미국이다. 미군은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어느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이 침략의 구두발로 온 남조선 땅을 무참히 짓밟고 유린하였다.

그러나 친미굴종, 종이에 환장한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들은 인민들의 생명소리를 외면하고 살인의 비위를 맞추고 피어울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서도 남조선당국은 관련 사실을 정확히 밝혀내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대신 분노한 민심을 두려워하면서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 그러나 미군은 남조선을 친외법권지대로 여기며 더욱 오만하고 횡포하게 날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의 탈을 쓴 침략자이며 강점자이다.

력사적 교훈은 대미굴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 각계에서 《이를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시사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결코 《우호국》이 아니며 가져다주는 것은 불행과 고통, 죽음뿐이다.》라고 애걸복걸하는 것과 다름없이 없지 않는가.》라고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황진옥



미국의 탄저균 반입을 규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분렬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민족의 분렬이 어언 70돌기의 년륜을 새긴 지금도 남조선에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물리적 장벽들이 남아있어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1979년에 군사분계선 전구간에 쌓은 원한의 콘크리트장벽도 그 하나이다. 축성이래 36년이 지난 오늘도 이 흉물스러운 장벽은 뼈저리게 남아있어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분렬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를 응변해주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콘크리트장벽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의 산물이다.

미국은 조선을 영구히 분렬시키고 남조선만이라도 식민지군사기지로 계속 틀어쥐고있으려는 침략적 야망 밑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개 조선》 조작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남조선집권층을 그 실행에로 내몰았다.

미국의 지령에 따라 남조선의 분렬주의자들은 1973년 6월에 이른바 《특별선언》이란것을 발표하여 분렬의 영구화를 정책화하였다. 그런 속에서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술한 자재와 인력을

들여 콘크리트장벽을 쌓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군사분계선으로도 모자라 그우에 물리적인 장벽을 또 구축해놓은 용서 못할 범죄행위였다.

콘크리트장벽이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동족과의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것이라하는 것은 1979년 어느 날 콘크리트장벽구축공사장에 나타난 《유신》 독재자가 《민족이 둘이 되는 셋이 되는 관계할바가 아니라. 장벽구축공사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꺼리낌없이 떠들어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생겨난 콘크리트장벽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는 대결과 분렬의 장벽으로 겨레의 원한을 사고 규탄을 자아내었다.

콘크리트장벽으로 하여 민족의 래왕과 협력, 통일의 길에는 커다란 물리적장벽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동서고금의 력사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안녕을 위해 성을 쌓는 기록들을 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반만년 오랜 세월 피줄도 하나, 문화도, 언어도 하나인 민족을 두동

강내며 강토의 허리에 길게 쌓아진 분렬의 장벽은 남조선의 콘크리트장벽밖에 없다.

이러한 대결시대의 유물이 없어지지 않고 새 세기의 10년대인 오늘에도 그 양 존재하고있는 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6.15시대에 북과 남은 래왕과 협력을 활발히 하면서 군사분계선 지뢰와 철조망들을 걷어내고 료로를 열고 관광길을 개척하는 성과도 이루어졌다.

민족이 일구어온 바라는 통일을 위해 장벽을 하나라도 허물고 북남관계의 문을 열어야 할 지금 저주로운 콘크리트장벽이 남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이제라도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콘크리트장벽이 없어질 때 북과 남은 더 자유롭게 래왕하고 협력하며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남측은 비무장지대에서의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만 떠들지 말고 이 지역에서의 긴장을 부채질하고 통일위협수행에도 해로운 대결의 장벽을 해체하여야 한다. 그것이 북남의 화해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도 이바지하는 길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파쇼독재강화와 재집권을 노린 개각놀음

지난 12월 21일 남조선에서 《정부》 개각이 있었다.

이를 놓고 남조선정국이 또 한바탕 소란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개각으로 장관자리에 내정된 인물들이 하나같이 구래의 연한 보수인물들로서 현 당국자의 손발 노릇에만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내정된 자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남조선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막상 개각의 뚜껑을 열어보니 경제에 대해서는 알짜 문의한인 《새누리당》의원이 선정되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다른 내정자들 역시 구래에 찌든 정치, 관료출신들로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현 남조선당국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자들에게 불과하다.

하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번 개각놀음을 《총선 지원용개각》, 《맹질식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라고 비난하면

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 버리고 있다.

청와대의 개각놀음이 얼마나 한심하였던지 남조선의 보수언론들까지도 《고심끝에 내놓은 카드가 측근정치인》, 《청와대 친정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는판이다.

남조선당국자가 《경제활성화》이니, 《민생》이니 하며 개각놀음을 벌려놓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보수세력의 장기집권과 파쇼독재강화를 노린 음흉한 술책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지금 남조선집권자는 보수세력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 청와대와

행정부의 심부름들을 다 음해의 《총선》에 출마시키는 한편 각계층 인민들이 규탄배격하는 《로동개혁 5개법안》과 같은 생존권 말살법안들을 다음해에 가서라도 기어코 통과시켜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남조선집권자가 그 무슨 《진실한 사람》이니 뭐니 떠들며 《총선》에 나서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측근인물들에게 입김을 불어주는 한편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세력들에 대한 파쇼탄압의 도수를 높이고있는 것은 그에 대한 립증이다. 최근에 남조선당국은 생존권보장과 민주화를 요

구하여 진행된 제1차,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파쇼경찰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한 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제3차 민중총궐기투쟁도 《불법시위》로 몰아 참가자들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총선》에서 과반수의석을 강탈하여 《유신》체제를 부활시키고 재집권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데만 눈이 벌개 돌아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반인민적이며 파쇼적인 행위는 민심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할뿐이다.

본사기자 서희



생존권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지나온 2015년에도 남조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의 권리가 마구 유린되어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그칠새 없었고 살기 어려워 매일에 대한 희망마저

미래가 없는 암울한 사회

저 포기하는 현상들이 우습하게 나타났다.

폭행당하는 아이들

아이들은 가정과 사회의 미래이다. 아이들의 밝은 눈동자에 사회의 밝은 앞날이 비껴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흐려져있다.

지금 수많은 남조선의 어린이들이 무서운 폭행과 학대로 꽃망울도 피우지 못하는 시들고있다.

올해에만도 남조선에서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보금자리로만 여겼던 《어린이집》에서 그것도 보호자라 믿었던 보육원들에게서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공개되어 세상을 놀래웠다.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4살 난 어린이가,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5살안팎의 어린이

들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어린이집》에서는 4살 난 어린이가 무서운 폭행을 당하였다. 모두가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할 유년기 어린이들이다.

어린이들이 폭행당한 리유는 단지 말을 리해하지 못한다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이런 죄 아닌 《죄》로 어린이들은 몸이 퍼래지도록 맞고 《도깨비방》으로 불리우는 캄캄한 방에 갇혀야 했고 추운 겨울에 발가벗기우고 벌을 서야만 했다.

그뿐인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여 2살도 안되는 어린이에게 더러운 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보챌라고 하여 강짜로 어린이에게 생마늘과 고추를 먹이는가 하면 못 먹을 것

을 먹여 토하게 하거나 머리를 물탱크에 치박는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지막지한 학대행위는 거의 매일같이 벌어졌다.

《어린이집》뿐이 아니다.

얼마전 남조선의 어느 한 유치원에서는 아무런 리유도 없이 지나가는 아이들을 발로 걷어차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발도 주지 않는 무지막지한 폭행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었다. 또 아이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의자를 낚아채서 바닥에 자빠뜨리고 질질 끌고다니는가 하면 련속 뺨을 때리는 일은 너무도 세사사로 되어있는 남조선이다.

더욱이 놀라운것은 아동폭행을 저지르는자들중에는 보육원이나 교육자가 아닌 친부모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아동폭행사건 10건중 8건의 가해자는 아이들을 낳아준 부모였다. 올해 상반기 기간에만도 전체 아동폭행가해자중에서 부모가 81.7%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아동폭행으로 12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응당 행복과 웃음만을 알려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보호자인 부모들이나 보육원들로부터 폭행을 받고있으니 이런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문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정신적 및 육체적 기형아로 되는 것이다.

자신을 돌봐주리라 믿었던 부모와 보육원 등으로부터 받은 학대는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아동학대근절》을 표방하고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대가 최근년간 27배나 급증한 사실은 이것이 한갓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있다.

학대와 폭행아래 공포정신심리에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적기능장애자의 97%가 어린시절 심

한 학대와 폭력을 겪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지어는 집에서까지 무서운 폭행을 당하며 자란 아이들에게서 정신과 육체가 바로 자랄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아동학대근절》을 표방하고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대가 최근년간 27배나 급증한 사실은 이것이 한갓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있다.

학대와 폭행아래 공포정신심리에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적기능장애자의 97%가 어린시절 심

한 학대와 폭력을 겪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지어는 집에서까지 무서운 폭행을 당하며 자란 아이들에게서 정신과 육체가 바로 자랄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아동학대근절》을 표방하고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대가 최근년간 27배나 급증한 사실은 이것이 한갓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있다.

학대와 폭행아래 공포정신심리에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적기능장애자의 97%가 어린시절 심

한 학대와 폭력을 겪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있다.

한 학대와 폭력을 겪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지어는 집에서까지 무서운 폭행을 당하며 자란 아이들에게서 정신과 육체가 바로 자랄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아동학대근절》을 표방하고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대가 최근년간 27배나 급증한 사실은 이것이 한갓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있다.

학대와 폭행아래 공포정신심리에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적기능장애자의 97%가 어린시절 심

한 학대와 폭력을 겪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지어는 집에서까지 무서운 폭행을 당하며 자란 아이들에게서 정신과 육체가 바로 자랄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아동학대근절》을 표방하고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대가 최근년간 27배나 급증한 사실은 이것이 한갓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있다.

학대와 폭행아래 공포정신심리에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적기능장애자의 97%가 어린시절 심

한 학대와 폭력을 겪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지어는 집에서까지 무서운 폭행을 당하며 자란 아이들에게서 정신과 육체가 바로 자랄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아동학대근절》을 표방하고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대가 최근년간 27배나 급증한 사실은 이것이 한갓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있다.

학대와 폭행아래 공포정신심리에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적기능장애자의 97%가 어린시절 심

한 학대와 폭력을 겪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지어는 집에서까지 무서운 폭행을 당하며 자란 아이들에게서 정신과 육체가 바로 자랄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아동학대근절》을 표방하고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대가 최근년간 27배나 급증한 사실은 이것이 한갓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있다.

은 대학졸업생들도 3명중 1명이 고등중학교졸업생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고 한다.

실업으로 인한 돈의 압박을 피해보자고 군데군데 간 청년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다.

구대원들에 의한 폭행의 희생물이 아니면 동족대결의 희생물이 되는것 뿐이니말이다.

돈에 놀리운 청년들은 아이를 아끼고 돌봐주는 것마저도 부담시키고있으며 그래서 애당초 결혼과 가정, 아이를 포기하는 《3포세대》가 날로 더욱 늘어나고있다.

이로 인해 남조선은 세계적인 저출산률을 기록하고있다. 인구학자들이 남조선에서 곧 인구위기가 조성될것이라고 하며 우려를 표시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청년실업문제를 풀겠다고 한것이란 고작 《렁렁 빌 정

이로 인해 남조선은 세계적인 저출산률을 기록하고있다. 인구학자들이 남조선에서 곧 인구위기가 조성될것이라고 하며 우려를 표시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청년실업문제를 풀겠다고 한것이란 고작 《렁렁 빌 정

이로 인해 남조선은 세계적인 저출산률을 기록하고있다. 인구학자들이 남조선에서 곧 인구위기가 조성될것이라고 하며 우려를 표시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청년실업문제를 풀겠다고 한것이란 고작 《렁렁 빌 정

이로 인해 남조선은 세계적인 저출산률을 기록하고있다. 인구학자들이 남조선에서 곧 인구위기가 조성될것이라고 하며 우려를 표시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청년실업문제를 풀겠다고 한것이란 고작 《렁렁 빌 정

이로 인해 남조선은 세계적인 저출산률을 기록하고있다. 인구학자들이 남조선에서 곧 인구위기가 조성될것이라고 하며 우려를 표시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청년실업문제를 풀겠다고 한것이란 고작 《렁렁 빌 정

도로 중동에 진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뿐이다.

돈에 의해 생존의 길이 막힌 많은 남조선의 청년들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도 다 버리고 범죄의 길로 떨어지고있다. 수원녀대학생살인사건, 통일

소녀타목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의 50%이상이 청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한다.

돈에 의해 이지리질대로 이지리진 청년들이 설사 가정을 가졌다고 해도 자식들을 폭행하는 무서운 부모로 되는것이 남조선사회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의 문어구에서 허덕이고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떠밀고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의 문어구에서 허덕이고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떠밀고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의 문어구에서 허덕이고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떠밀고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의 문어구에서 허덕이고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떠밀고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의 문어구에서 허덕이고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떠밀고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의 문어구에서 허덕이고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떠밀고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의 문어구에서 허덕이고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떠밀고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의 문어구에서 허덕이고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떠밀고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의 문어구에서 허덕이고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떠밀고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의 문어구에서 허덕이고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떠밀고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의 문어구에서 허덕이고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떠밀고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 가정의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의 문어구에서 허덕이고있는 청년들이 사회를 떠밀고나갈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미래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등록금, 취업에 대한 부담, 그리고 《삼포세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년 때는 정규직을 잃지 않기 위해, 생의 말년에는 남은 생을 연명하기 위한 생존경쟁에 휘말려든다. 이 치열한 생존경쟁의 희생자들이 바로 남너로스 가림이 없는 수많은 남조선의 자살자이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자살은 《집단지행》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가장 심각한 사회적문제의 하나다. 한주에 270여명이 자살하고 있다는건 매주 《세월》호 1척이 침몰하고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최근 남조선인민들속에 류행되는 신조어들은 사회의 지옥같은 현실을 그대로 설명해준다.

《지옥같은 《한국》》을 의미하는 《헬조선》, 사람값에도 못하는 서민들을 가리키는 《통수저》, 《홍수저》, 살기위해서는 남조선을 탈출해야 산다는 《탈조선》, 《대한민국》의 《대》를 《개》로 바꾼 《개한민국》, 뜻그대로 지옥을 의미하는 《지옥불반도》, 외로움, 우울, 무력감의 악순환속에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뜻하는 《은둔형 청소년》...

반인민적인 정치하에서 돈많은 부자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돈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져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는것이 남조선이다.

《모든 현실은 이 사회가 미래가 없는 사회임을 말해준다.》

남조선전역에서 터져나오는 민심의 울분과 항거의 목소리이다.

채주연

는 것을 휘뿌리며 쓰러졌다.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룡교만박》 (6)

글 한웅빈, 그림 김윤일

단군은 북쪽을 맹세한 족장과 나란히 서있었다. 족장은 포로도 아니었고 패전장군도 아니었다. 이

제는 단군의 신하이며 그의 더없는 힘이였다. 그때 범족군사들이 나타났다는 전갈이 날아들었다.

단군이 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갈의 참패를 만회해보려는 것이였다.

《그 수가 얼마인지 헤아리기 어렵소이다.》

자욱한 먼지구름이 빠른 속도로 밀려오는것이 확연히 알리였다.

이제라도 강을 건너가면 대군의 공격을 피할수 있었다. 강물이 아직은 건너올 때와 같이 물이 줄어든 상태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물러선다면 오늘 얻은 승리가 허사로 되어버릴것이었다. 오늘의 승리를 공고히 하려면 싸워야 하였고 반드시 이겨야 하였다.

그러나 단군의 결에는 백여명의 기마군사밖에 없으며 기본주력은 동쪽

기슭에 있었다. 그들을 이쪽으로 불러오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모자랐다.

오늘의 승리는 지략으로 얻은것이다. 지략으로 얻은 승리는 반드시 지략으로 지키고 지략으로 끝맺어야 한다. 그러자면...

단군은 하늘의 해를 쳐다보았고 발밑의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각쯤(삼십분가량) 지나면 울려미는 밀물에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할것이다. 이각, 이각만 얻어내면 된다!

단군은 이미 가까이에 있는 범족의 선두부대를 향하여 장검을 쳐들었다.

《나가자!—》 그의 뒤를 따라 백여명 기마군사가 질풍같이 달려나갔다. 범족의 선두부대는 그들의 맹렬한 기세에 압도되는데다 맨앞에서 탈러오는 단군을 보고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기본부대를 기다렸다가 합세해서 공격하려는 모양이였다.

단군은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강의 흐름이 점차 떠지고있는것이 알리였다. 밀물이 오르기 시작한것이었다.

이때다! 단군은 말을 돌려서였다.

《이제는 그만 돌아가자!》

단군은 말을 달려 《룡다리》에 들어섰다. 백여명 기마군사와 족장도 그의 뒤를 따랐다. 단군은 건너올 때처럼 다시 강물우를 평지처럼 내달렸다. 기마군사들과 족장도 《강물우》를 달렸다. 뽀얀 물보라를 일쿠며 달리는 사람과 말, 그 모습은 퇴각이 아니라 공격해나가는 모습보다 더 장쾌해 보였다. 마치 신화속에서 나오는 군사들같았다.

그사이 강기슭에 이른 범족의 족장은 칼을 빼든 채 소리쳤다. 그때는 이미 단군의 마지막기마군사가 동쪽대안에 이른 때였다.

《빨리 뒤를 쫓으라! 단군이 도망치고있다! 쫓으라!》

그러나 강물우를 평지처럼 내달렸다. 기마군사들과 족장도 《강물우》를 달렸다. 뽀얀 물보라를 일쿠며 달리는 사람과 말, 그 모습은 퇴각이 아니라 공격해나가는 모습보다 더 장쾌해 보였다. 마치 신화속에서 나오는 군사들같았다.

그사이 강기슭에 이른 범족의 족장은 칼을 빼든 채 소리쳤다. 그때는 이미 단군의 마지막기마군사가 동쪽대안에 이른 때였다.

《빨리 뒤를 쫓으라! 단군이 도망치고있다! 쫓으라!》

그러나 강물우를 평지처럼 내달렸다. 기마군사들과 족장도 《강물우》를 달렸다. 뽀얀 물보라를 일쿠며 달리는 사람과 말, 그 모습은 퇴각이 아니라 공격해나가는 모습보다 더 장쾌해 보였다. 마치 신화속에서 나오는 군사들같았다.

《빨리 뒤를 쫓으라! 단군이 도망치고있다! 쫓으라!》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을 줄 알라!》

족장에게 물려 강에 들어서는 처음은 말의 발목을 치어서러던 범족의 선두군사들이 그 소리에 주춤거리며 뒤걸음질쳤다.

성이 똑같이 난 족장은 선두군사중의 하나를 칼로 세계 내리쳤다. 군사

는 것을 휘뿌리며 쓰러졌다.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놈들아! 이쪽 룡다리가 아니라 여울이다, 여울! 모두 나를 따르라!》

범족장장은 단군이 걷는 곳으로 말을 힘껏 내물었다. 그러자 범족군사들도 그뒤를 따라 강에 들어섰다. 그들의 말발굽밑에서는 어인 일인지 강물이 막 부글거리는듯싶었다.

《빨리! 빨리!》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